



창간 54돌 전기신문, 힘차게 움직이는 운전기처럼

발맞춰 디지털화도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입니다. 힘차게 움직이는 저 운전기처럼.

변화, 혁신, 전환은 멈추지 않음을 뜻합니다. 하나의 형상에 고정돼 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더 나은 곳을 향해 움직이는 것. 오늘날 대변혁의 시대를 맞아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에너지전환, 남북관계 개선 등을 한 해 수많은 변화들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창간 54주년을 맞은 전기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주 3회 일간지로 전환한 데 이어, 모바일 흐름에

글·사진=김광국 기자

수요감축요청 발령 예측가능성 높아질 듯

‘목표수요 초과시’에 ‘예비력 고려’까지 포함
현행 DR 규칙 개정·발령조건 더 명확해져

앞으로 수요감축요청 발령 기준이 보다 명확해져 수요반응(DR) 참여고객들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DR업계에 따르면 16일 열리는 규칙개정위원회 안건에 수요감축요청 발령조건과 등록시험 감축지속시간 등에 관한 안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한과·폭염 등 이상기후에 의한 전력수요 급증에 따라 수요반응자원(DR) 활용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수요감축요청은 DR제도가 시행된 첫해인 2014년 1회, 2015년 0회로 거의 없었지만, 2016년 2회, 2017년 5회 발령된 데 이어 올해는 1~2월 두 달 동안 7회나 발령됐다.

현행 DR 발령조건이 목표수요 초과 시로 규정돼 있다 보니 예비력이 아무리 많아도 전력수요가 목표전망치보다 높아질 경우 발령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겨울 전력수요가 치솟으면서 수요감축요청이 10회 이상 발령되면서 업체들이 감축목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DR 거래시장 자원규모와 참여고객수가 대폭 줄어든 바 있다.

따라서 수요감축요청 발령기준에 목표수요 초과뿐만 아니라 예비력을 고려하기로 개정함으로써 시장참여자들의 발령 예측가능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규칙개정 조항에 구체적인 예비력이 명시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2면에 계속
정형석 기자 azar76@

에너지·세대·기술·남북관계 ‘전환의 시대’...준비 서둘러야

본지, 독자 634명 대상 설문조사...변화 대비 철저한 준비 ‘공감’

‘전환의 시대’를 맞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 논의가 시급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고, 갈수록 낮아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시됐다. 또 에너지전환의 성공 추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사회·문화적 교류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본지가 창간 54주년을 맞아 ▲세대 ▲에너지·기술 ▲남북관계 등 3가지 이슈의 전환을 주제로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총 634명의 독자들이 참여, 전환의 시대에 대비해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설문조사 4·5면

20~30대 청년세대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냈으며,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진 국내 4차 산업혁명 대응 움직임을 비판했다.

또한 남북 화해무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교류를 시작으로, 전력·에너지 분야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먼저 ‘세대의 전환’ 관련 조사에서 응답자 5명 중 4명은 ‘청년세대의 어려움과 심각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돌파구가 없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는 이들도 38.6%에 달했다.

현 60세 정년과 관련해서는 5~10년 정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0% 이상이 은퇴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답했으며, 65~69세(40.5%), 60~64세(35.6%)가 적정하다는 답변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노동시장이 감소할 것이라는 데 전반적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특히 ‘인공지능(AI), 로봇의 역할 확대와 단순 노동일자리 감소, 전문가 수요 증가’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응답(56.0%)이 많았다.

‘기술·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는 전력산업에 가

장 큰 영향을 끼칠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인공지능(AI)이 꼽혔다. 인공지능 기반의 전력설비 진단기술이나 전력망 제어, 스마트그리드 운용,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신뢰성 제고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확대 움직임과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로 전력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기초·상용화 연구(30.1%)와 규제 철폐(25.4%)가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답이 엇갈렸지만, 기업들의 대응 수준은 아직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글로벌 기업과 비교한 국내 기업들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수준은 10점 만점에 6~7점(53.9%)이 절반을 넘었으며, 5점 이하의 점수를 매긴 이들도 10%를 넘어,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다는 시선이 지배적이었다.

‘남북관계의 전환’을 주제로 한 조사에서는 현재와 같은 남북 화해무드를 이어가기 위해 우선적으로 교류·협력할 분야로 사회·문화 분야(39.3%)가 손꼽혔으며, 전력·에너지 분야(24.9%)의 협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

심각한 수준에 이른 남북 경제 격차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는 인프라 구축 및 전문기술 전수(39.7%)와 북한 지하자원 개발(34.4%)이 필요하며 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남북관계의 전환에도 동일에 대한 논의는 아직 시가상조라는 시각이 많았다.

통일 시기에 대해 20년 이후라고 답한 이들이 3분의 1을 넘어섰으며, 11~15년(28.2%), 16~20년(22.6%) 등 통일로 가기까지는 적어도 10년이 넘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김병일 기자 kube@

창간기획 특집섹션/에너지전환의 시대 9~17면



Compact
DC Switch Disconnector
세계 최초 DC 1500V



DC 기중차단기/개폐기

사이즈는 DOWN! 성능은 UP!
친환경까지 생각하는 프리미엄급 DC 시리즈



LS산전 | 서울 02)2034-4578~9 대구 053)603-7711~5 광주 062)510-1811~5 대전 042)820-4203~5
부산 051)310-6821~4 고객센터 전국 어디서나 1544-2080 http://www.lsis.com